

검약의 숨겨진 의미

글 하민희 (주)이미지21 대표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흔히 부자라고 하면 '남보다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근사하게 차려입고 멋진 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사람을 연상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들은 시대와 나라에 상관없이 검약한 생활을 한다. 최근 AP 통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CEO의 절반 이상은 벤츠 등의 고급 차보다 수수한 승용차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있으며 픽업 트럭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13%나 됐다. 고급스러운 미니밴이나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CEO도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화스러운 아파트에, 외제 승용차 그리고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은 사람들의 편견이 만들어낸 부자의 모습일 뿐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자선재단에 거금을 투척한 세계적인 갑부 워런 버핏은 50년 전 3만 1300달러에 산 고향 오마하의 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고,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은 평생을 낡은 시보레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역시 단세 켈레의 구두로 30년을 버틸 만큼 검소했다. 20년 넘게 쓴 청운동 자택의 소파는 가족이 허명계 일어날 정도였고 거실에는 일반 가정에서조차 보기 드문 17인치 TV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현명한 사람들은 부자를 헛부자와 진정한 부자로 구분할 줄 안다. 겉모습은 휘황찬란하지만 부자의 의무를 모르는 사람은 헛부자이고, 평소에는 검약하지만 부의 의미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다.

영국의 철학자 사무엘 스미얼스는 그의 저서 <검약론>을 통해 검약이야말로 부자의 조건이라 주장한다. 검약은 삶에 질서를 가져오며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준다. 돈은 있지만 그 기운과 씩씩이를 절제할 줄 아는 것, 반드시 써야 할 곳, 써야 할 상황에 제대로 쓰는 것, 그리고 자신의 한도 내에서 절약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만일을 위해 저축할 줄 아는 것, 바로 진정한 부를 얻고 즐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검약은 궁색을 떠는 것이나 인색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상대에게 초라함을 보여 동정심을 유발시키거나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만큼 초라하게 구는 궁색은 아무리 물질적인 풍족함을 갖춘다 할지라도 사람을 얻을 수가 없다. 자기 손에만 꼭 쥐고 함께 사는 다른 이들을 위해 절대로 베풀지 않는 것은 인색함이다. 인색한 사람은 본인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초라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함께 살아가려는 사회성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자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얻을 줄 안다. 그들은 부를 쌓고 쓰는 것에 대해 원칙을 지키고 절제를 할 줄 알기에 부를 유지하고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 한때 인터넷에서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녹색 점퍼 이야기가 한창 화자된 적이 있다. 라오치리는 네티즌은 원자바오 총리의 산동성 방문 기사를 읽다가 그가 입고 있는 녹색 점퍼가 1995년 서우팡이라는 농촌마을을 방문했을 때 입었던 옷임을 확인하고 그때의 사진과 함께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다. 11년간이나 같은 녹색 점퍼를 입고 민정시찰을 나간 원자바오 총리에 대한 이야기는 13억 중국 인민을 감동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CEO는 곧 부자라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CEO의 입은 것, 탈 것, 사는 곳을 보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검소하지만 돈을 쓸 때는 보람 있게, 가치 있게 돈과 마음을 쓰는 것을 보고 부자라 여겼으면 한다. 탁월한 CEO는 당연히 부자여야 한다. 다른 이의 눈에도, 자신의 마음에도 당연한 진정한 부자여야 한다. ☺

이 글을 쓴 하민희 대표는 협성기 경제경영대학원 MBA를 졸업하고 서울대 연세대 삼성그룹 LG그룹, KT, 국민은행 등의 기업체와 학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강의와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